

MIRAL

밀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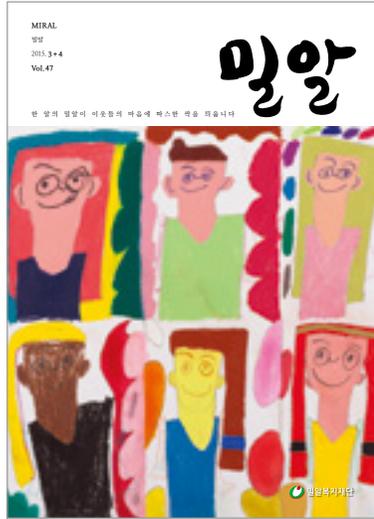
2015. 3+4

Vol.47

밀알

한 알의 밀알이 이웃들의 마음에 따스한 썩을 틉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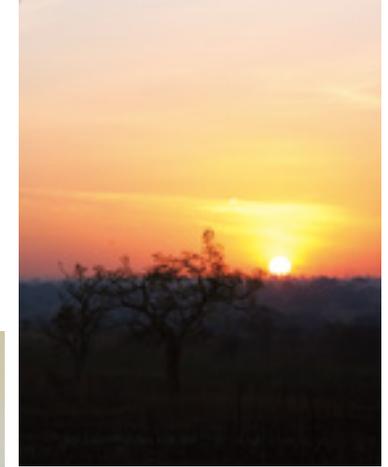


Cover story

색채 감각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기혁이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그려낼 정도로 그림에 푹 빠져 있다. 밀알복지재단과 KB국민카드가 함께하는 발달장애아동 미술 지원사업 '2014 봄(Seeing & Spring)'을 통해 작가로 데뷔했으며, 올 4월에 있을 전시회에도 함께 할 예정이다.

그림 김기혁

〈선생님〉, oil pastel on paper, 77x54cm, 2014



밀알복지재단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993년 설립되어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 48개 산하시설과 4개 지부에서 국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 복지서비스와 자립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해외 22개국에서 특수학교 운영, 빈곤아동 교육지원, 이동진료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전개하는 전문사회복지단체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이사장] 홍정길 [상임대표] 정형석 [이사] 김명희, 김종인, 김주영, 박상범, 손봉호, 송창국 [명예이사] 노상현, 박완철, 장형욱, 정현만 [감사] 김재훈, 신명철, 임수택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완철 위원 구자영, 이유진, 이종면, 정태중, 정형석, 최병우 [국월위원회] 위원장 신명철 위원 김명환, 박정열, 손만석, 이민철, 정형석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인 위원 김귀자, 류제룡, 박상호 이정우, 정형석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희 위원 강영실, 류미희, 박소영, 신민선, 이은주, 임종학, 정형석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정현만 위원 김혜경, 윤지준, 이기민, 전영희, 정형석, 한정국 [윤리위원회] 위원장 신명철 위원 박상범, 서경석, 정현만, 정형석 [전문위원] 김두현, 김미옥, 김의동, 김형식, 이천화, 전승만

밀알 2015. 3+4 Vol.47

제호 밀알·Miral(통권 47호)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발행 및 편집인 정형석 주소 135-884 서울시 강남구 방고개로 1길 34(수서동)
TEL 대표번호 02-3411-4664 회원전용 1600-0966 FAX 02-3411-4779 디자인·인쇄 리드릭
www.miral.org facebook.com/miral4664 miralorg.blog.me @miral1993 @miralwelfarefoundation

04	밀알서신	전 세계 소외된 이웃의 곁에 밀알이 함께합니다
06	밀알포커스	밀알복지재단 주요 소식
08	한 알의 밀알	박수진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국내아동결연캠페인
10	이슈 인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
16	MIE (Magazine In Education)	'오동'의 하루
18	빈곤을 해결하는 아이디어	우간다 아이들이 가방으로 안전하게 물을 나를 수 있도록
22	특별한 지도그리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주변
28	귀를 기울이면	러셀-실버 중후군 이야기
30	함께하는 마음	함께라서 고마워
33	나눔후기	모두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34	밀알콘서트	당신의 참여가 '함께'를 만들어갑니다
36	현장 이야기	북한 장애인 인권, 우리의 관심이 변화를 만듭니다
40	희망파트너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42	인터뷰 36.5℃	후원자 김혜성씨와 자녀 손유현양과의 인터뷰
44	굿윌캠페인	자선이 아닌 기회를!
45	밀알뉴스	산하시설 소식
48	회원안내	'장애인의 날' 맞이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회원 모니터링 '어울림' 2기 모집 소식지 구독 전환 캠페인
51	결산보고	여러분의 후원금,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전 세계 소외된 이웃의 곁에 밀알이 함께합니다



우리재단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작한 것은 12년 전입니다. 당시 제1회 밀알통합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직원들과 평가회의를 하면서 이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의논하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밀알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길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필리핀 세부 수상가옥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바자오족 아동교육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태국 카렌족 지원 등으로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4년 전부터 SBS 희망TV 방송모금에 참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여 현재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22개국 29개 사업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해외복지사업을 실천하고 있으니 놀라운 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우리재단은 홍정길 이사장과 손봉호 교수 등 전·현직 이사장과 남북나눔운동본부, 전주대학교, 이랜드 등의 참여로 미얀마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방문한 곳은 미얀마 옛 수도인 '양곤'의 빈민가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외곽 지역에 있는 청소년 기숙사였습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하여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미얀마의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카친족이 살고 있는 '미찌나'로 약 1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한 지역이었습니다. 난민촌 캠프에 들렀을 때 그곳 대표가 다섯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첫째는 식량 부족이었으며, 둘째는 식수로 사용할 물의 부족, 셋째는 전기 없는 삶으로 인한 어려움, 넷째는 아이들의 교육, 다섯째는 생계를 위한 일자리 등이었습니다.

난민촌의 안타까운 현실에 우선적으로 저들의 요청에 부응코자 밀알복지재단과 신동아학원이 준비한 식량과 남북나눔운동이 우물공사비를, 이랜드가 의복을 현장에서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

으로 밀알이 계획하고 있는 난민촌 아동 교육사업과 태양광랜턴 지원을 협의하였습니다. 특히 전기가 없어 밤만 되면 어둡가운데 힘겨워했던 난민들에게 태양광 랜턴 지원에 대한 소식은 환호성을 불러일으킬 만큼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밀알은 준비되어 있던 태양광 랜턴 5백 개를 우선 보냈으며, 추가로 5백 개를 더 보내려고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이 지구 상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밀알은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현장에 잘 전달되도록 더욱 비우고 낮추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5년 3월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정 경 석

밀알포커스

1~2월 밀알복지재단의 주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에너지 절약하고 희망의 빛 선물해요

제1회 에너지나눔 공모전 시상식 개최

우리재단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한 '제1회 에너지나눔 공모전'의 시상식이 밀알학교 일가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소감문 심사를 거쳐 총 19명의 수상자와 3개의 우수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선이 아닌 기회를!

굿월스토어 밀알구리점 개점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굿월스토어가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집안 구석구석 잠자는 물건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굿월에 기증해주세요.

'아무나'가 아니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북한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워크숍

'북한 장애인 인권 어디에 서 있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장애인 인권의 세계적 권위자들과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가워요! 밀알의 새 식구

김인식 교회협력홍보대사 위촉

'아름의 축복'으로 잘 알려진 CCM 싱어송라이터, 김인식 목사가 밀알복지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앞으로 김인식 홍보대사는 교회에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활동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미얀마 카친족 난민캠프 방문

밀알은 이번 방문을 통해 향후 200여명의 난민캠프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미얀마에서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2015 NGO 봉사단 파견

밀알을 통해 파견되는 2015 NGO 봉사단은 총 6명으로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우간다, 필리핀 등 총 4개 국가에서 약 1년 동안 아동결연사업, 이동진료사업, 재활복지사업 등 지구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밀알**



당신의 작은 관심과 도움은
한 아이의 성장과 변화, 기적에 함께하는 일.

다가오는 따스한 봄,
아이들의 마음에 희망이라는 싹을 틔워 줄 당신이
한 알의 밀알입니다.



박수진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국내아동결연캠페인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

정리 홍보팀 김미란 사진 홍보팀 장혜영

밀알복지재단에서는 2015년 연중기획으로 아프리카 중 한 국가를 선정하여 소개하는 '이슈 인 아프리카' 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시아 다음으로 빠른 성장세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되는 아프리카. 이번 호에는 아프리카의 진주로 알려진 우간다를 소개합니다.

우간다 키워드

전설적인 독재자 이디 아민, 나일강의 근원지 진자, 소금의 눈물 카트웨 호수, 키스 스쿨



아름다운 자연을 지닌 나라

우간다는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해 있다. 빅토리아 호수의 풍부한 수자원과, 자연의 신비를 맛볼 수 있는 르웬조리산. 그리고 야생동물이 뛰어다니는 대평원 등 개발이 되지 않아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여러 개가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을 지닌 나라이며, 영화 몬도가네와 타잔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전 국토의 4분의 1이 호수이며, 우간다의 중심을 이끌어가고 있는 수도는 캄팔라이다. 3,758만 명이 살고 있으며 국내총생산은 214.8억 USD이다 (세계은행, 2013년).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농업이 주산업이며, 주로 면화와 커피를 재배한다. 우간다 국민 중 기독교 신자가 84%를 차지하며 이슬람교 신자도 12%가량 있다.

흑인의 아프리카와 빛나는 태양. 그리고 형제애



검정 · 노랑 · 빨강의 3색이 6개의 띠로 배치되었고 중앙에는 관학이 있다. 3색은 1962년

4월 선거에서 승리한 우간다인민회의(Uganda People's Congress)를 상징하는 색으로서 검정은 흑인의 아프리카를, 노랑은 빛나는 태양을, 빨강은 형제애를 나타낸다. 관학은 이 나라의 국조(國鳥)이며 민족의 상징이다.

한눈으로 보는 역사

1962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독립
1966	밀턴 오보테(Apollo Milton Obote)가 쿠데타로 대통령이 됨
1967	신 헌법 선포, 공화제 선언
1971	이디 아민(Idi Amin)의 군사쿠데타와 대통령 선출
1979	이디 아민 대통령이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혁명군에게 쫓겨남
1980	다시 밀턴 오보테가 돌아와 대통령이 됨.
1986	아프리카의 비스마르크라고 불리는 무세베니가 승리하여 수도 캄팔라에 입성해 대통령이 되면서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침

전설적인 독재자, 이디 아민

전설적인 독재자로 알려진 이디 아민(Idi Amin, 이하 아민)은 1946년 영국군 막사에서 요리사로 일하다 큰 체격에다가 스포츠에 대한 재능. 그리고 영국

장교들에 대한 높은 충성심으로 총애를 받았다.

1971년 1월의 아민은 쿠데타를 벌여 유화정책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곧 역쿠데타가 두려워 무차별 학살을 하기 시작했다.

아민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어밥으로 만드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수십만 명의 국민들을 학살했고, 1972년 '우간다화정책'을 내세워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사람을 위한 것이며 아프



리카 사람이 아니면 모두 아프리카를 떠나야 한다'고 선포하며 7만 명의 아시아인을 추방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몰수해 국유화하고, 아시아인이 떠난 우간다는 물가가 치솟고 해외 투자자들의 발길도 끊겨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상점도 농토도 전혀 관리되지 않는 정글과 다름없는 나라에 해외 투자자들이 돈을 들고 찾아갈 리 없었다. 그는 국정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막대한 자금이 군 예산에 투입되었으며 돈이 부족하면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찍어내게 했다.

이러한 아민의 폭정이 극에 달하자 우간다 내에서 아민을 제거하려는 암살 시도가 이어졌지만 전부 실패했다. 아민은 쿠데타 음모를 무마하기 위해 1978년 탄자니아를 침공했으나, 탄자니아 군과 국내의 반대파인 '우간다 국민 해방 전선(UNLF)'의 반격을 받고 패배하여 이듬해인 1979년 리비아로 망명했다. 그 후 사우디아라비아로 옮겼다가 2003년 8월 16일 78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간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축제를 열며 즐거워했다고 한다.



우간다 캠프 스쿨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 놀고 있다.



카트웨호수의 어린 노동자

22명

신생아 사망률
1,000명당, 2013

66명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1,000명당, 2013

38%

하루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
2009-2012

16.3%

아동 노동률
2005-2013

91%

초등학교 입학률
2009-2013

1,500천명

에이즈 감염자수
2012년 추정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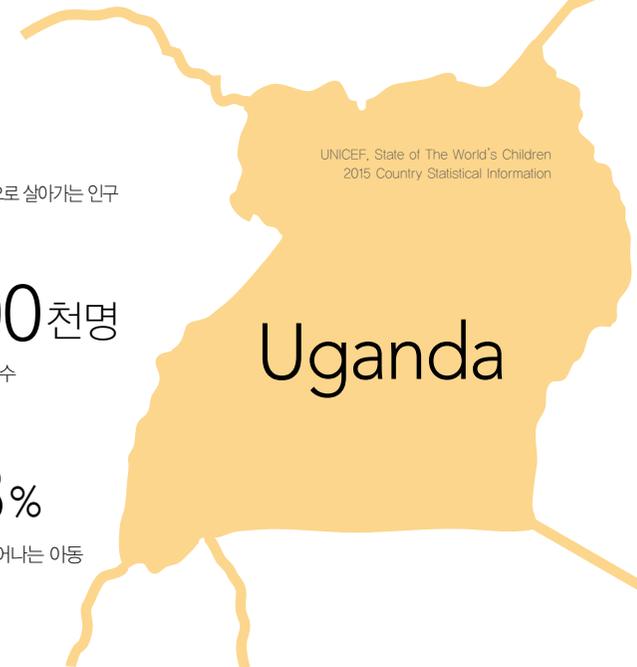
성인 문해율
2009-2013

59세

기대수명
2013

11.8%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아동
2009-2013



우간다에 방문한다면, 둘러보세요

호수와 강, 숲과 비옥한 토지가 끝없이 펼쳐지는 풍요로운 땅 우간다는 지금 눈부신 경제성장 중이다. 그 원동력 중 하나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다. 우간다에 방문한다면 꼭 보고 와야 할 명소를 소개한다.

첫 번째는 머치슨 폭포 국립공원이다. 43미터의 3단 폭포로 유명하다. 아프리카의 젓줄이라 불리는 나일강의 근원을 품고 있고 76종에 이르는 동물들과 450여종의 새를 만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천국이다. 입장료는 \$30이다.

두 번째는 나일강의 근원을 볼 수 있는 진자이다. 인류의 역사보다 오래된 나일강의 진자는 빅토리아 호수의 조그만 샘에서 시작하고 있다. 진자에서는 래프팅도 즐길 수 있다. 진자의 래프팅은 세계 5대 코스로 불릴만큼 유명하다. 특히 우기에는 엄청난 유량으로 인한 스릴이 넘친다.

세 번째는 브윈디 국립공원이다. 아프리카에 얼마 되지 않는 태고의 우림지대로 멸종위기의 야생 고릴라뿐만 아니라 90여종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다. 수도 캄팔라에서 남서쪽으로 300km 떨어진 곳에 위치 해 있다. 입장료는 \$30. 고릴라트래킹을 할 경우에는 \$700이다.

네 번째는 퀴 엘리자베스 국립공원으로 유네스코

지정 생태계의 보고라 불리운다. 하마, 코끼리, 표범, 사자와 침팬지 등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95종의 포유류의 본고장인 동시에 500여종이 넘는 조류를 관찰할 수 있다. 입장료는 \$35이며 침팬지 트래킹을 할 경우 \$50이다.

마지막으로 소금의 눈물, 카트웨 호수이다. 화산활동으로 생긴 소금 호수는 사해보다 염도가 더 높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우간다에서 유일하게 소금이 생산되는 소금호수이기 때문이다. 카트웨 소금호수 방문 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 높은 소금농도와 황화수소 등의 인체 유해성분을 포함한 물은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감염을 일으킨다. 날카로운 소금에 의해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도 돈을 벌기위해 계속 물에 들어가야 하고, 작은 상처는 높은 염분과 닿아 악화된다. 그리고 생식기를 통해 들어온 소금물은 불임을 일으키고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노동자들의 아픔을 기억해 주길.

참고

- 2012 우간다 방문지 안내자료, 주 우간다 대한민국 대사관
- 투산백과, 위키백과
- KIDA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한국국방연구원
- 『아프리카의 눈물』, MBC 아프리카의 눈물 제작팀, 2010
- 『4월의 모든 역사: 세계사』, 이종하, 2012
- 『아프리카를 말한다』, 류광철, 2014
- 『툰 아프리카사』, 김상훈, 2010
- 『단도 투자』, 모니시 파브라이, 2007
- 『지분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 스티브 포프스, 엘리자베스 아메스, 2011

가장 비참한 곳을 찾아 떠났던 아버지와
그 뒤를 이어 삶을 뒤바꾼 딸의 사랑이 있는 곳,

우간다 ‘김스 스쿨’

내전에는 반군의 활동 거점으로 활용되고, 내전 이후에는 반군지역으로 정부에게 소외 받은 우간다 북부 굴루는 상처가 많은 곳이다. 절망만 남아있을 것 같은 굴루 지역이지만 아이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자라고 있으며, 그 아이들을 위해 생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밀알복지재단 김은혜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다.

가장 비참한 곳을 찾아간 아버지

2006년, 김은혜 매니저의 아버지인 김종성 목사(2009년 작고 · 당시 55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찾아갔다. 김은혜 매니저는 “지금 돌이켜봐도 아버지는 마치 그들을 위해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가장 열악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을 찾아갔다.”고 회상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2006년 4월 아프리카에서 가장 열악한 우간다 굴루의 난민촌에 정착했다. 김종성 목사는 2005년 11월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를 방문했다가 “내전으로 가장 비참한 곳은 우간다 굴루”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부의 지원없이 소외된 채 마른 나무 뿌리를 먹고, 흙탕물을 먹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당시 내전으로 인해 부모님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아이들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환영을 보는 등 정신 질환을 앓기도 했다. 아이들을 돌봐줄 학교나 치료받을 보건소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곳에서 김종성 목사는 갯터미만 남은 곳에 우물을 파고, 초등학교와 보건소를 세웠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서서히 김종성 목사에게 마음을 열었고 주민들이 힘을 합쳐 나뭇잎을 엮어 김종성 목사의 집을 지어 주기도 했다. 그리고 2009년 3월 8일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던 딸 김은혜 매니저는 “아버지가 소천했다”는 비보(悲報)를 전해 들었다.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떠난 우간다

김은혜 매니저는 ‘왜 우간다에 갔느냐’는 질문에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을 찾아가셨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 아버지의 사인(死因)조차 밝히지 못하고 장례를 치렀다. 아버지는 평소 딸인 김은혜 매니저에게 “우간다의 손을 놓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해왔다. 김은혜 매니저는 많은 고민을



김은혜 매니저는 학생들과 함께 공부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한 후, 본인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눔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한국에서 10여 년을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지내던 김은혜 매니저는 사직서를 내고 2009년 8월 5일 우간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남편과 어린 두 자녀와 함께 굴루 지역에서 아버지의 행보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굴루 사업장이 위치한 우간다 북부 지역은 지난 20년간 반군들의 주요 활동기지로써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전이 종식된 지금까지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차로 1시간 정도 나가면 학교가 있지만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반군들의 공격, 그로 인해 죽은 가족들에 대한 아픔 때문이다.

굴루지역에 설립된 김스 스쿨은 이러한 아이들에게

밀알복지재단 우간다지부 ‘김스 스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구 분	설 명	세부지원내용
지역영역	교육 서비스 제공 및 관련 물품 지급을 통해 아동의 학습성취도를 향상시킵니다.	학비 지원, 교재 지원, 학용품 지원, 재봉교육 실시, 교사교육 지원, 교육환경 개선
신체적영역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의약품 지원, 급식비 지원, 에이즈 검사 실시, 영양제, 구충제 지원
사회·정서적 영역	예체능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어린이 캠프 실시, 현장학습 실시, 체육 대회 실시, 지역 육상 대회 지원, 지역 음악 경연 대회 지원, 성교육 실시, 놀이시설 마련

빛과 같았다. 김스 스쿨은 밀알복지재단의 운영지원으로 유치원 1학년부터 초등학교 7학년까지 총 10개 반에 약 45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18명의 교직원들이 재직하고 있다.

김은혜 매니저는 아버지를 묻은 땅에서 카사바 한 조각에 삶의 끈을 잇고, 학교에서의 배움을 통해 희망을 키워가는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보며 그 마음에 희망을 심는다. 환영을 보던 아이들은 김은혜 매니저의 품에서 어느덧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

내전이 종식된 지 오래지만 우간다 사람들은 여전히 굴루 지역이 위험하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그곳에도 희망이 자라고 있다. 꿈꾸는 아이들이 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키워주는 한국인 선생님이 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굴루 지역을 살리고, 우간다의 미래를 변화시킬 희망을 품고 있다. **이영향**



아버지를 이어 희망과 성감을 이어가고 있는 ‘김스 스쿨’

'오동'의 하루

글 우간다지부 한성국, 진솔 정리 홍보림 김미란

소식지 '밀알'은 앞으로 아프리카를 주제로 한 MIE (Magazine In Education)의 약자로 잡지 활용 교육) 코너를 연재하고자 합니다. MIE는 앞서 소개된 '이슈 인 아프리카'를 바탕으로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아프리카라는 낯선 대륙에 대해 배우고 나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읽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이번 호에서는 우간다에서 살고 있는 '오동'이라는 아동의 하루를 살펴봄으로써 우간다의 생활·문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동이와 함께 할 하루 준비 되셨나요?



염소가죽 : 우간다 사람들은 염소가죽으로 복도 만들어 사용하고, 바닥에 카펫처럼 깔고, 그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한다. 우간다에서 염소는 한 마리에 한국 돈으로 3~4만 원 정도이며, 가죽은 오천 원에서 만 원 정도로 구할 수 있다.

여명의 하늘, 들녘에서 새소리가 난다.

만물이 눈을 뜨고 하루를 준비함에 여념이 없다. 밤새 촉촉이 젖은 들풀은 떠오르는 해를 반갑게 맞이하는 듯, 잎 끝을 빛내며 손을 흔든다. 우기로 새벽엔 제법 추운 요즘이라 아이는 말린 **염소가죽** 하나를 바닥에 깔고, 이불이라 부르기도 송구스러운 얇은 천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감싸고 마치 번데기가 껍데기 속에서 나오듯 고개를 내밀며 누운 자리에서 일어난다. 입고 있는 옷은 언제 부터 입었는지, 또 언제 빨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누덕누덕 헤어지고 시커멓다.

어제 개울에서 떠와서 항아리에 담아 둔 물을 반 컵 떠서 대야에 담아 세수를 하는 가 싶더니, 이내 앞이 잘 안 보이는 할머니가 준비 해 둔 **수수떡**으로 허기 진 배를 채운다. 물 항아리, 조그만 화로, 땀감, 물통, 지금 입은 찢어진 옷, 교복, 그리고 이웃이 지어 준 버섯 모양의 **소풍꿀집**이 아이와 할머니가 가진 전부이다.

우간다에 살고 있는 아이, 오동은 어릴 적 에이즈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형제에게 시집을 가 버렸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해맑은 아이의 웃음 뒤엔 어딘가 모를 어둠으로 늘 웅크려 있다. 팔십 할머니의 노력으로 착하게 커 나가는 아이가 대견스럽기만 하다.

이제,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 받은 교복을 입고 찢어진 노란 봉지와 그 안에 든 너털너털한 노트 몇 권을 들고 학교에 간다. 절뚝거리는 두 다리엔 언제부터 시작 됐는지 모르는 누가 봐도 심각한 상처를 두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저 묵묵히 발걸음을 옮긴다. 울음도 없고, 짜증도 없고, 투정도 없다. 자연과 함께 일어나 염소와 닭들을 지나고 아프리카의 들판, 풀길을 지나 학교에 도착하여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수업을 기다린다.

오늘 수업엔 오동의 눈에서 빛이 난다.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이 불러주시길 간절히 기다리며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손을 든다. **운전수가 꿈인 오동은 자동차와 탈 것에 관해 배우는 오늘 수업이 즐겁기만 하다.** 그리고 학교에서 저학년(1~2학년)에게 주는 옥수수 죽을 쪽쪽 거리며 두 손가락으로 맛나게 빨아 먹는다. 입가엔 미소가 한 가득이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오동의 모습을, 어른이 된 후에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동에게 있어서 학교는 배우는 곳일 뿐 아니라 맛있는 음식이 있는 멋진 식당이기도 하다. 학교가 있어 고맙고, 선생님의 가르침이 고맙고, 먹을 수 있어 행복한 오동. 오늘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더 행복하다.

운전수와 함께 수리공이 되는 것이 꿈인 오동은 이제 집으로 돌아와 고물이 된 라디오를 만지작거리다. 그리고 할머니를 도와 밭일을 돕는 사이 어느 새 해는 서쪽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다. **오동의 집 한쪽 구석에 자리한 화덕**에도 저녁을 준비하느라 하얀 연기가 피어오른다. 오동의 꿈도 모락모락 피어올라 행복을 요리할 수 있길 조용히 기도한다. **밀알**

수수떡 : 우간다에서는 수수로 가루를 만들어서 떡처럼 먹는다. 그리고 수수떡 외에도 옥수수 가루 떡이나 쌀, 고구마, 카사바, 암 등을 주식으로 먹는다. 우간다 사업장의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옥수수 가루 떡을 급식으로 한다.

소풍꿀집 : 소풍과 진흙으로 집의 벽을 세운다. 그리고 마른 풀로 지붕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우간다의 집이다. 우간다 캄팔라의 대부분 아이들은 이러한 집에서 살며, 양철지붕은 시내에 가야 볼 수 있다.



우간다에서 남편이 죽으면? : 우간다에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의 친정집에 가기도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거나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 우간다 골루의 킵스 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을 조사해 보았다. 1위는 선생님, 2위는 농부 3위는 간호사. 이외에도 의사, 건축가, 엔지니어 등이 있다.

화덕 : 우간다 흙집에서는 화덕으로 음식을 해 먹는다. 그런데 환기가 되는 시설이나 창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연기가 집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해 매캐하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폐병이나 천식, 눈병에 자주 걸린다. 지붕이 마른 풀로 되어 있어 불이 나면 속수무책으로 지붕이 모두 타 버리기도 한다.



우간다 아이들이 가방으로
안전하게 물을 나를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고 싶어요.”

글, 사진 홍보팀 정혜영



‘빈곤’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의 상태가 ‘빈곤’일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하고, 기술에서 소외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도 항변할 수 없는, ‘빈곤’은 생활적인 궁핍 이외에 사회적, 문화적 소외를 동반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술’,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이라는 별명을 가진, 적정기술. 첨단기술은 아닐지라도 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적정기술과 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제3세계와 소통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물’이라고 대답해도 의아하지 않을 것이다. 물이 있는 곳에 썩이 트고, 수풀이 우거지고, 동물들이 모여들며 생명이 태동하니 말이다. 사람들 역시 매일 물을 찾는다. 이러한 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물은 삶이다(Water is life)’라는 모토를 가지고 활동하는 제리백(jerry bag) 박중열씨를 만났다. 중열씨는 아프리카에서 물통으로 사용하는 제리캔을 모티브로 물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우간다 여성들과 함께 만들고 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전공한 그의 물 환경 개선 방법은 무엇일까?

직접 보고 느끼고 만든다.

제리백의 대표 박중열씨는 한국에서 제품디자인을 전공하고, 필란드에서 지속가능한 디자인 석사과정을 마쳤다. 어떤 디자인을 하건 사회와 연관된 디자인을 하고 싶었던 그는 2011년 유니세프의 우간다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2주 동안 우간다에 머물며 굴리는 물통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때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분석하고 환경을 살피면서 오히려 굴리는 물통이 현지 상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우간다 아이들은 매일 물을 나르는데 1시간 30분 이상을 사용했고, 10kg의 제리캔(물통)을 머리에 이고 걸어야 했다. 그래서 물통을 굴릴 수 있도록 둥글게 만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지의 지형이 고르지 못하고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아서 이보다 더 쉬운 이동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간다 아이들이 무거운 물통을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나를 수 있도록 백팩을 만들자' 10kg에 달하는 물통을 넣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현지에서 만들 수 있을 만큼 심플한 디자인의 가방을 만들기로 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해결에 관심을 쏟다보면 문제는 심플해져요. 현장에 해결책이 있죠.” 중열씨는 특별한 물건이 아닌, 우리에게 익숙한 가방이지만, 물통을 머리에 이지 않아도 되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현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와 현지 사람들이 만들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의 가방을 만들어서 물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디자인의 가방이 해결책이라니.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발한 발명품은 아닐 수 있지만, 중열씨는 이후 5개월 동안 우간다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 살면서 문화를 배우고, 가죽 구두 제작을 배우는 기술학교를 다니며 현지화할 수 있는 손기술을 익혔다. 처음에는 제리캔(물통)을 이용해서 백팩을 만들었고, 아이들이 중열씨의 가방을 두드리며 줄줄 따라올 만큼 눈길을 끌었다. 우연히 만난 우간다 디자이너의 추천으로 패션쇼를 통해 가방을 선보이게 되기도 했다. 더욱이 이 가방을 만들게

된 이유가 공감을 얻으면서 중열씨는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우간다 사람들의, 우간다 사람들을 위한 물 운반법.

중열씨는 우간다 사람들이 재미 같다고 말했다. 물을 담아서 나르는데 사용하는 제리캔(물통). 이 제리캔이 부서지면 사람들은 잘라서 세숫대야로 만들어 사용한다. 더 부서지면 물통 손잡이 부분은 문손잡이로 쓰거나, 남은 부분을 화분을 만들어 쓴다. 거기서 더 잘게 부서지면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재활용된다. 이렇게 알뜰살뜰한 우간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이 아니라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는 말한다. 실제로 현지에는 NGO를 통해 재봉기술 교육을 받은 우간다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을 고용해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었다. ‘현지의 문제를 현지에서 해결하자’는 생각으로, 우간다에서 구하기 어려운 재료는 배제하며 디자인했다. 가방 끈의 길이를 조절하는 데 사용하는 버클이 없어서 그보다 더 아날로그적인 방식인 매듭을 만들어 길이를 조절하도록

하고, 시장에서 텐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천을 구해서 방수가 되도록 했다.

보통 기업에서는 제품을 현지화하기보다, 현지의 노동력만 이용하고 현지에서 따라 할 수 없게 원자재와 디자인은 타국에서 만든다. 하지만 중열씨의 제리백은 우간다 여성이 혼자서 전 과정을 할 수 있게 디자인하고 교육했다. 작년에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 작업장을 만들었고, 올해부터는 물 위생교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교육장도 갖출 예정이다. “단계, 단계인 것 같아요. 올해가 지나가야 내년이 오는 것처럼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을 운반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생교육에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현재 제리백은 우간다, 핀란드, 한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가방을 판매하는 방식은 탐스 슈즈의 1 for 1 방식과 비슷하다. 가방이 하나 팔릴 때마다 우간다 아이들에게도 하나씩 가방을 보급하고 있다.



“우간다에서 제품을 만들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우간다였기에 가방이라는 결과물이 나온 것이지 아마 다른 나라였다면 다른 해결책이 나왔을 거예요.” 중열씨는 가방이 적정기술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부끄럽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튼튼한 백팩은 우간다의 울퉁불퉁한 도로 사정을 고려한 안전한 물 운반법이자, 현지 여성들이 기술을 익히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되고 있다. 현지의 문제를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직접 우간다에 가서 생활하며 시도하고 있는 그에게서 적정기술의 원동력을 배울 수 있었다. **인양**



특별한 지도그리기 프로젝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주변



글 작가 정지영 사진 홍보팀 장혜영
활동 Closer 서포터즈 강원규, 김은지, 김찬걸, 유경재, 조영훈

특별한 지도 그리기 프로젝트는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직접 서울 이곳저곳을 누비는 활동입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턱없는 매장, 편견 없이 장애인들을 친절하게 맞아주는 착한 가게, 장애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실만한 장소 등을 찾아 지도로 만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밖을 나서지 못하는
그들에게 안심하고 찾아갈만한 곳들을 미리 지도로 만든다면 그들의 소풍은 조금
이나마 즐거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새롭게 태어난 관광 명소

동대문운동장이 있던 곳과 그 주변은 오랜 시간동안 의류 도매시장, 대형 쇼핑타운, 스포츠용품점 등으로 많은 사람이 붐비던 곳이다. 관광객, 특히 중국인들의 방문이 크게 늘면서 이 일대는 관광지로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을 헐고 그 자리에 DDP라는 복합 문화 공간을 짓게 되서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최근 완공된 DDP는 유명한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설계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그녀의 다른 건축물들과 마찬가지로 마치 미래에서 온 것과 같은 유선형의 반짝이는 디자인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또한, 동대문운동장 터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다듬어져 이곳에 역사적인 볼거리를 더하고 있다. 대형 패션 쇼핑몰이 여러 개 모여 있다는 희소성, 기괴할 정도로 신기하고 거대한 유명 건축물, 역사적 공간까지.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이 지역은 과연 장애인들에게는 어떤 즐거움을 선사할까?

거대한 환승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은 3개의 지하철 노선이 연결된 환승역이고 지하쇼핑센터와 연결되어 있어 역사가 매우 크고 복잡한 편이다. 2, 4, 5호선이 모두 연결된 이 역은 불가피하게 역이 매우 길게 되어 있어 이동 거리가 긴 것이 단점이기는 하지만 지하로 먼 거리를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3개의 노선이 겹쳐지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거대한 환승역답게 다른 역보다 많은 2개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DDP로 연결되는 1번 출구 근처의 엘리베이터는 휠체어 2대가 들어갈 정도의 넓이여서 매우 편리하다. 2, 3번 출구 근처에는



볼거리가 많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 남녀 모두 어려움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1번 출구는 DDP와 연결이 되어 있고 건너편 쇼핑타운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한다면 1번 출구만 기억하면 될 것 같다.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엔 동대문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면 좋는데 장애인에게 80%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 부담이 적다. 공용주차장은 DDP와 맥스타일 사이 길로 DDP를 오른쪽에 끼고 돌면 진입할 수 있다.

역 주변의 작은 가게들

3번 출구 건너편 광희문 바로 옆에는 아주 독특한 모습의 카페가 눈길을 끈다.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마조앤새디 카페인데 2층엔 갖가지 캐릭터 인형으로 가득한 아늑한 공간이 있어 친구와 약속을 잡기 좋다. 1층에서 주문을 하고 2층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휠체어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3번 출구 주변에는 스포츠 브랜드의 양대산맥인 나이오와 아디오 매장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나이오 매장은 도움이 없는 휠체어가 들어가기에 어려웠지만 아디오 매장은 경사로가 있어 휠체어가 들어가기도 편리했고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었다.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공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드디어 미래에서 온 것만 같은 공간에 들어가 볼 차례다. 각진 곳 하나 없이 곡선만으로 이뤄진 이 건축물은 무겁게 내려앉은 반고체 덩어리 같기도 하고, 우주선 같기도 하다. '주변과 어우러지지 않는다', '서울의 자랑이 될 만한 건축물이다' 등등 말도 많았지만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장애인에게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는지만 판단해 보기로 했다.

대형 건물일수록, 그리고 최신 건물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일단 지하철에서 완만한 경사로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부터 점수를 줄 만 하다. 대부분의 전시에 장애인 할인이 된다는 점도 좋다. 장애인 화장실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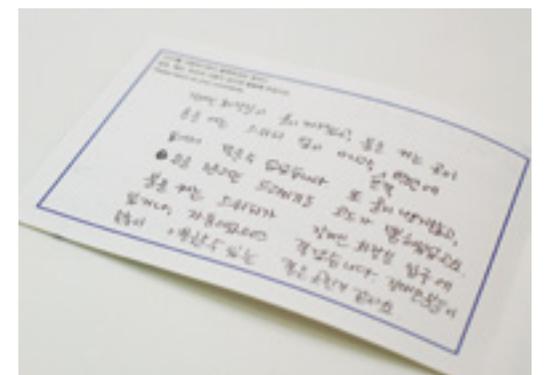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있는 마조앤새디 카페

하지만 디자인장터 내부 장애인 화장실을 직접 확인해봤을 때 물이 나오지 않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물을 켜는 곳이 문 입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센서도 작동하지 않았다. 물을 켜는 스위치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찾을 수 있을 만큼 구석에 있었다. 이에 고객센터를 찾아가 고객의 소리에 메시지를 적었고, 바로 다음날 '자동으로 전등이 작동 되도록 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물이 나오도록 점점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메일을 받을 수 있었다.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 중인 점은 좋았지만, 사전에 공사 중이라고 표시를 했다면 장애인 분들이 헤매지 않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전체적으로 층간 이동이나 건물 안에서의 이동이 편리하고, 카페와 식당 등의 먹거리와 전시장과 같은 볼거리가 밀집되어 있어 약속장소로 추천하고 싶다.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쇼핑센터들

동대문운동장 주변은 전부터 의류 원단시장, 의류 도매시장으로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으로 유명



DDP 고객의 소리함에 장애인 화장실 불편사항을 적어 답변을 받았다



패션 쇼핑몰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 중인 CLOSER 서포터즈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헌책방

했고, 언제부터가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서고 상인들 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과 관광객들까지 몰리면서 이제는 '동대문'하면 쇼핑이 떠오를 정도로 쇼핑의 천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최근에는 DDP와 대형 쇼핑몰들이 들어서면서 으리 으리할 정도의 거대 쇼핑타운이 형성되었지만 모든 곳을 소개하기는 어려워 역에서 가깝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 위주로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가장 가까우면서 이동이 쉽고 영화관까지 있어 추천하고 싶은 '굿모닝시티'. 이곳은 주변 쇼핑몰 중에서도 통로가 가장 넓은 편이어서 이동이 쉬운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게다가 역에서 아주 가깝고 DDP쪽에서 진입도 편리해서 여러 쇼핑몰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을 만하다. 지하 3층엔 찹쌀방, 그리고 9층에 영화관이 있어 여가를 즐기기도 좋다. 영화관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잘 설치되어 있었다. 다만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표시되지 않아 주의를 요한다.

바로 옆 apm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문이 밀기 어려운 미닫이 문이라서 조금 아쉬웠다. 1층에 여성용 장애인 화장실이 있기는 하지만 남성용 장애인 화장실은 찾기가 어려워 이점도 아쉬웠다.

무엇보다 이 장애인 화장실은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되지 않아 화장실을 점검하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

매력적인 헌책방 거리

두산타워를 지나 청계천 쪽으로 가다 보면 헌책방 거리가 있는데 책방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겠지만 길을 지나며 책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볼 만하다. 대형서점만이 살아남는 요즘에 헌책방의 책들을 본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경험이 될 수 있고, 많은 책들 사이에서 혹시나 모를 진귀한 책을 찾는 행운도 기대해 볼 만하다. 새 책 대비 가격이 싸다는 점도 매력. 헌책방 거리로 바로 가고 싶다면 동대문역 9번 출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편이 더 가깝고 편하다.

헌책방 거리 바로 옆으로는 청계천이 흐르는데, 오간 수교와 버들다리 사이에 경사로로 진입하면 청계천으로 내려갈 수 있다. 종각이나 시청 편에서 다루었듯 종로측 이동로를 이용하면 휠체어로도 산책이 가능하다.

총 평 거대한 새 건물이 장애인에게 주는 편의성은 역시 무시할 수가 없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편의시설 면에서도 추천할 만 했다. 하지만 유도블럭의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 지하철 앞의 보도와 DDP 내부에도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한 유도블럭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드문드문 출입문에 점자만 보였다. 그리고 대형 건물 외에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줄어든 점도 아쉬웠다. DDP, 쇼핑센터들 외에 길거리 음식이나 아기자기한 가게는 찾기 어려웠고, 쇼핑센터의 경우 생각보다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 관광객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주변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장애인 편의시설과 별개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장소였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만들어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가며 마주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을 배려하고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장애인 분들의 약속장소가 굳이 크고 새로 지어진 건물만 되지 않아도 될 테니 말이다.

접근성 : ★★★★★

편의성 : ★★★

재미 : ★★★ **망양**



대한민국의 1%, 희소난치성질환 이야기 러셀-실버 증후군 편

편집 홍보팀 오슬길

‘희소난치성질환(稀少難治性疾患)’. 매우 드물어 쉽게 걸리지 않는 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다른 의미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희소병 환자 수는 약 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 100명 중에 한 명은 희소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같은데요. 최근에는 윤종신 등 유명 연예인들도 잇따라 자신의 희소병을 고백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1%라는 수치는 우리들과 거리가 먼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희소병 환자가 나, 혹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된다면 그것은 과연 1%의 일처럼 느껴질까요?

장애아동의료복지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밀알은, 매회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소난치성질환의 경우 질병의 사례가 드물어 해당 질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알 소식지에서는 다음페이지에서 이어지는 ‘함께하는 마음’ 코너에 소개된 장애아동들이 앓고 있는 질환을 소개하여 후원자님들의 이해를 돕고, 사람들의 관심으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러셀-실버 증후군

이번에 소개할 러셀-실버 증후군(Russell Silver Syndrom)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약 400여명 이상의 환자들이 보고된 바 있으며, 발병률은 적게는 십만 명 중에 한명, 많게는 3천 명 중에 한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희소난치성질환입니다. 1953년 미국 소아과 의사 헨리 실버가 소아학지에, 1954년에 영국 소아과 의사 알렉산더 러셀이 왕립학회 의학회보에 보고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의 절반이 염색체 이상을 보이나 일부 환자들에게선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성장지연과 비정상적인 얼굴모양, 다섯 번째 손가락이 선천적으로 굵어져 있는 ‘손가락옆굽음증’, 몸의 한쪽이 비대칭인 편측비대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증상들을 띄게 됩니다. 이렇듯 매우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것은 러셀-실버 증후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러셀-실버 증후군을 앓는 환아는 산모의 뱃속에서 정상적으로 10개월을 채우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작은 키에 저체중인 미숙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미 자궁에서부터 성장지연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태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이 지연되기에 뼈의 발달 또한 더디며, 그 결과 나이에 비해 왜소한 체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서양의 경우 러셀-실버 증후군 환자의 평균 키가 150cm 이하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러셀-실버 증후군 환아들에게는 성장호르몬, 식욕 촉진제, 위관 등의 치료를 진행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훨씬 작은 키를 갖게 됩니다.

이 외에도 러셀-실버 증후군을 앓는 환아들은 이마가 얼굴에 비해 비대하게 튀어나와 있으며, 턱이 작고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턱에 이가 날 공간이 부족하여 치열이 고르지 않게 나기도 하며, 음식을 빨고 씹는 연하기능의 발달이 더딘 경우도 있습니다. 성장지연을 보이는 러셀-실버 증후군 특성 상 영양섭취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많은 환자들이 위에 관을 연결하여 음식을 섭취하는 위루관 수술이나, 코에 연결된 관(콧줄)을 통해 섭취하는 위관영양수술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개된 찬우 역시 위루관 수술과 위관 영양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의료비지원대상 선정되어도 털어낼 수 없는 의료비 부담

앞서 말한 증상들 외에도 러셀-실버 증후군은 다양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치료 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희소난치성질환입니다. 현재 러셀-실버 증후군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질환인데요. 의료비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희소난치성질환과 그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지출된 요양급여비용 중 법정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비지원대상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을 수 없는 비급여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상당하기에 환자와 그 보호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밀알복지재단은 희소난치성질환을 비롯하여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저소득 희소난치성질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들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밀알 역시 희소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아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그 가족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전달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밀알**

튀어나온 이마와 작은 턱. 호흡기와 식사를 위한
콧줄. 스물 네 시간 동안 호흡기와 콧줄을 달고 있는
찬우(가명, 남, 3세)의 하루는 또래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함께라서 고마워

글, 사진 | 자원사업팀 배혜인



2012년의 어느 가을, 찬우는 당시 몸무게 1.25kg의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직후 장이 꼬여있다는 진단을 받게 된 찬우는 세상에 눈을 뜨기가 무섭게 수술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4개월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어야만 했던 찬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러셀-실버 증후군이라는 진단과 함께 뇌병변장애 1급이라는 청천벽력같은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연하능력(음식물을 입으로 섭취하는 능력)이 발달되지 않아 위루관수술(직접적으로 위에 음식물을 넣게 해주는 수술)을 해야만 했던 찬우. 두 번이 넘게 수술을 진행했지만 염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다. 결국 위루관을 제거하고 현재는 콧줄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먹는 연습을 하고 있지만 아직 찬우에게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일은 어렵기만 합니다. 또한 혈당 조절도 되지 않고 있어 때때로 저혈당이 발생할 때면 경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들 투성이인 세 살 찬우의 삶

작은 침대와 책상 하나만 놓였을 뿐인데, 딱 차서 두 사람 이상은 방문 안으로 발을 디디기조차 힘들 정도로 비좁은 방. 이곳에 두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찬우가 앓고 있는 러셀-실버증후군은 여러 진료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수인 희소질환이기에 찬우 엄마는 병원 근처의 작은 고시원을 얻어 지내고 있습니다. 방 안에는 병원에서나 볼 법한 링겔병과 산호호흡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서랍장에는 찬우에게 쓰이는 약들이 빼곡했습니다. 창문도 없어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좁고 답답한 공간 속, 찬우는 이 공간이 이미 익숙한 듯 멜로디 책을 펼쳐들고 놀기 시작합니다. 노는 모습은 영락없는 세 살 아이지만, 아주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질병과의 사투를 벌여야만 하는 찬우. 아직 세 살 밖에 되지 않은 찬우에게 삶은 왜 이리도 어려운 일들 투성이일까요?



호흡기가 약해 스스로 숨 쉬기가 어려운 찬우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수치가 5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무호흡증이 오게 되기 때문에 엄마는 찬우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찬우를 두고 집 앞 편의점도 갈 수 없어요. 그 사이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호흡근관이 발생하게 되면 큰일 아니...” 2개월 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산소포화도 수치가 떨어져 급히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게 왔다면 찬우의 생명이 위험할 뻔 했다는 의사선생님의 말. 찬우가 세상에 태어난 후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식사를 할 수도, 깊게 잠 들 수도 없었던 엄마. 그렇게 찬우의 곁을 지켜온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찬우를 잘 살펴보지 못해 찬우에게 큰 고통을 준 건 아닐까 스스로를 책망하는 엄마는 지금도 찬우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쉽지 않은 삶, 그럼에도 함께라서 고마워

“찬우가 산소호흡기와 콧줄을 떼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홀로 찬우를 키우는 엄마는 현재 국가에서 나오는 양육 및 장애수당을 받고 있지만, 의료비와 고시원에서 머무는 비용만으로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특히 바이러스 노출이 쉽게 되는 찬우의 특성상 주거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현재까지 병원으로부터 지원받았던 입원비와 수술비의 향후지원도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매 분 매 초 찬우의 곁을 지키며 찬우의 상태에 변화가 없는지 지켜보아야 하기에, 밖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번다는 건 찬우 엄마에게는 꿈과도 같은 일입니다.

찬우는 앞으로 연하재활치료, 물리치료를 통해 근육 강직을 완화하고, 입으로 식사를 하는 훈련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찬우가 앞으로 얼마나 더 병원을 가야 하는지, 호흡기와 콧줄 식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건, 찬우와 함께할 수 있음에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보는 사람마저 웃게 만드는 찬우의 밝은 미소를 보고 있다면, 엄마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우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엄마가 많이 사랑해.” **민양**



모두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글 지원사업팀 김래홍

태어나서 한번도 빛을 본 적이 없었던 아이, 밀알 36호에 소개된 아영이는 시각장애와 뇌변장장애를 중복으로 앓고 있는 6살 여자아이입니다. 당시 아영이는 섭식기능이 약해 일반적인 음식은 삼키지도 못하고 유동식외밖에 먹을 수 없었으며, 신체발달도 전혀 되지 않아 누워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볍게 목을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웠던 아영이는 어둠기만 한 세상이 두려워 계속 울기만 하던 아이였습니다.

아영이의 사연이 소개된 이후, 감사하게도 밀알 복지재단의 개인후원자들의 후원이 연결되었습니다. 후원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아영이에게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각적 제한이 있기에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안해하던 아영이. 그동안 재활치료를 통해 신체적 여러 감각들을 자극하여 공간적 불안함을 해소하는

훈련을 해온 덕분인지 이제는 외부자극에도 놀라는 횃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엄마와의 분리불안으로 하루종일 엄마의 품속에만 있던 아영이는 지금은 기분이 좋을 때면 장난감이나 음악을 들으며 혼자 놀기도 합니다. 신체적인 변화도 찾아왔습니다. 구강치료를 병행하면서 이제는 건더기가 있는 밥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섭식기능이 발달했으며, 가누기조차 힘들어하던 고개는 이제는 엮드려서 고개를 들고 한참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아영이의 모습을 보며 엄마는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영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고 웃어주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손을 뻗어 엄마의 얼굴을 만지며 엄마의 존재를 느끼고, 감정을 교감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영이를 만났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희망적인 나날들, 우리가 지금 아영이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건 모두 후원자님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민양**

후원 신청 문의 1899-4774

■ 후원 계좌

- 우리은행 322-058119-13-001
- 신한은행 140-006-896511
- 하나은행 810-213130-00104
- 외환은행 630-009630-877
- 예 금 주 밀알복지재단

■ “기적을 품은 아이들” 장애아동 의료지원사업

뇌병변, 뇌성마비, 희소 난치성 질환 등 장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수술비 및 결연후원을 통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빠른 재활을 돕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

만 18세 미만 뇌병변, 뇌성마비, 희소 난치성 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수술비 (1,000만원 한도)
- 치료비 (월 20만원)

여러분들의 후원금은 찬우와 같은 장애아동의 의료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의료지원사업은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수술, 결연 의료비로 사용됩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제12회 밀알콘서트

M I R A L

C O N C E R T

2 0 1 5

함께 하면 통합니다

2015. 03. 23(월) 오후 7:30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

출연진 지휘 서진, 밀알페스티벌오케스트라, 소프라노 박지현, 테너 장의근, 바이올린 이수빈, 첼로 차지우, 사회 이덕선



당신의 참여가 '함께'를 만들어갑니다

한 소년이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악보를 보는 것, 소리를 내는 것, 음정과 박자를 맞추는 것,
 오랜 시간의 땀과 눈물,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순수한 열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연주자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연주가 위로와 감동이 되는 것은 그 인고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견고한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제12회 밀알콘서트에 좁고, 어렵고, 불편한 길을 걸어온 모든 사람을 초대합니다.

기나긴 시간 묵묵히 여기까지 걸어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자리에 모여 위로와 응원의 박수를 나눌 때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통합사회가 시작됩니다.

무대 위 연주자로서, 관객으로서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작된 통합사회의 구성원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 조화를 이뤄내는 연주자입니다.

제12회 밀알콘서트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하모니를 이뤄낼 연주자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참여가 '함께'를 만들어갑니다.

제12회 밀알콘서트,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음악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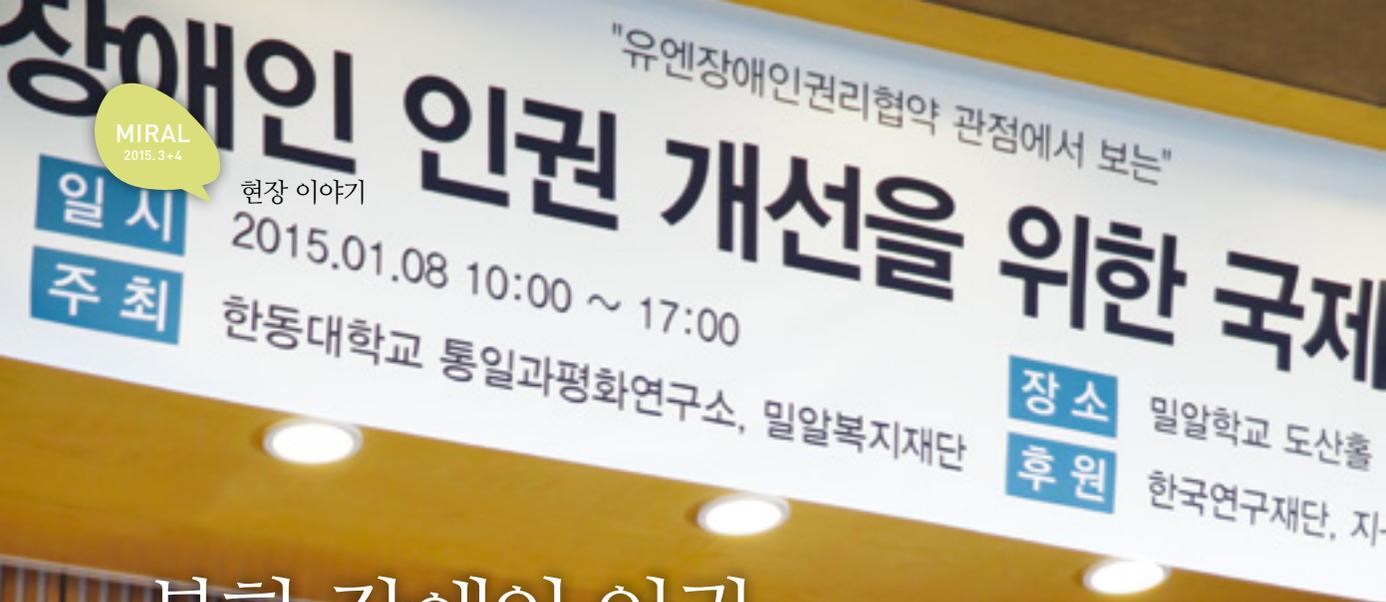
- 행사일시 : 2015. 03. 23(월) 오후 7:30
- 행사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
- 관람대상 : 후원자 및 장애인 (※ 세종문화회관 정책상 취학 전 아동은 입장이 제한됩니다.)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서울은행, 집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 차량운행, 식사제공 (※ 신청 02-3411-6896)

※ www.milcon.kr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MIRAL
2015.3+4

현장 이야기

일시
주최

2015.01.08 10:00 ~ 17:00

한동대학교 통일과평화연구소, 밀알복지재단

장소
후원

밀알학교 도산출

한국연구재단, 자

북한 장애인 인권, 우리의 관심이 변화를 만듭니다

편집 홍보팀 오솔길 사진 홍보팀 장혜영



기초연설중인 김형식 전문위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가 아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나온 오준 대사의 연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날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안건을 정식 의제로 채택할 것인지를 놓고 투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문제 등과 비교해 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지난해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mmission of Inquiry, COI)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재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COI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소수기득권층을 제외한 주민 대부분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소수이고 약자인 북한 장애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걸까요. “북한의 장애아는 태어나면 어디론가 끌려간다.” 지난 12월, 영국 의회에서 열린 북한인권공청회에서 탈북자 장애인인 지성호씨가 말했듯 북한의 장애인 인권 역시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03년 장애인보호법을 제정했으며, 2013년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장애인을 평양에 거주할 수 없게 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장애인들을 격리하고 강제불임을 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차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북한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린 낮은 장애인식 때문이며, 열악한 사회 시스템은 북한 안에서 장애인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워크숍

지난 1월 8일부터 2일간 밀알학교에서 열린 ‘북한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워크숍’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북한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다룬 컨퍼런스입니다. 컨퍼런스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인 장애인 인권 및 복지 기준을 바탕으로, 북한 장애인 인권의 현시점을 이해하고자 개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으로,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비준동의에 따라 2009년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되었습니다. 이는 컨퍼런스 공동주최자인 한동대 통일과평화연구소의 '북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진행 된 것으로, 통일과평화연구소는 북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국제장애인권연구의 최고 기관인 미국 시라큐스(Syracuse) 대학 버튼 브렛 연구소(Burton Blatt Institute) 등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위 기관을 비롯한 국제적인 장애인 인권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북한 장애인 인권 개선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컨퍼런스는 밀알복지재단 전문위원이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인 김형식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으며, 첫 날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해에 대해 시라큐스 대학 버튼 브렛 연구소 자넷 로드(Janet Lord) 박사의 발표와 북한인권시민연합 요안나 호사냐(Joanna Hosaniak) 부국장, 장애인법연구회 김미연 사무국장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북한 장애인이 처한 현실에 대해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이규창 연구위원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통일부 통일기반조성과 황승희 과장, 한동대학교 법학부 송인호 교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대학교 GEA학부 최용준 교수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전명희 교수가 북한 장애인 인권 연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날 세션2(북한의 장애자 보호법과 장애인의 현실)에 참여한 통일부 통일기반조성과 황승희 과장은



“북한체제의 특성상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지적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때 발전적인 측면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9일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해'라는 주제로 8일 컨퍼런스 세션1(국제적 기준에서 본 국제장애인권협약 이해)의 발표자이자 장애인 인권의 세계적 권위자인 자넷 로드(Janet Lord) 박사와 엘리슨 데프란코(Allison DeFranco)가 직접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고 권위의 장애인권 매뉴얼인 'Human Rights, Yes!'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 장애인 인권 조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워크숍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와 장애인기관 실무자, 학생들은 그룹별 활동을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각 조항을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미국의 상황과 비교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적인 권위를 가진 장애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장애인 인권의 이해를 도모하고 국내 장애인 분야 종사자들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또한 설립 이후 20여 년간 국내외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밀알복지재단의 국제적인 역량 또한 키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밀알복지재단은 지구촌 모든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지난 여름, 북한은 사상 최초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선수를 출전시키고 조선중앙통신에 장애인을 출연시키는 등 이전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국제사회의 규탄에 대응하기 위한 모습으로 풀이되지만, 그것이 '선전'용이건 아니건 간에 북한이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장애인 인권 문제를 의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인권은 선진국 또한 끊임없이 사회적 논의가 발생되는 현재진행형의 문제이고, 인권 선진국이라 말하는

국가들도 지금의 수준을 달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의 장애인 인권 역시 단 시간에 변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 조금씩 작은 변화들을 보이고 있듯,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속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북한도 언젠가는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인권을 가지게 되는 날이 올 지도 모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북한 장애인 인권에 대해 논의를 나누는 이번 컨퍼런스는 북한 장애인의 인권이 개선되는 언젠가의 그 날을 향한 첫 발걸음과도 같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개선을 불러일으키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밀알**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글, 사진 홍보팀 오승길

철도의 특성을 살려 국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는 코레일. 그중에서도 수서관리역과 죽전관리역은 우리재단과 함께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수서관리역과 죽전관리역이 만드는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한 세상'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김영호 수서관리역장과의 인터뷰

수서역 분당선에 가면 밀알복지재단의 캠페이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서관리역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장애인식개선캠페인을 펼칠 수 있도록 역사 내에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장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리캠페인 활동은 우리사회의 장애인식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서관리역은 지난해 우리재단과 함께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하며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펼쳐나갈 코레일 수서관리역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코레일 분당선은 밀알과 2014년도부터 사회공헌협약을 맺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밀알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과거 철도청이던 코레일이 2005년부터 철도공사로 출범하면서, 윤리경영이 떠오르던 시기와 맞물리며 코레일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차츰차츰 영역을 넓혀나가면서, 현재는 작은 역단위에도 사회공헌활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서역 분당선의 경우 관내에 위치한 밀알복지재단에 나눔문화를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코레일 분당선만의 사회공헌활동 목표나 방향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역사 내 장소제공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관내 병원과 밀알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통해,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활동 또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해 온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층을 위해 겨울나기 키트를 함께 만들던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서로 연습한 것도 아닌데 마치 컨베이어벨트처럼 손발이 착착 맞던 모습을 보며 서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일지 않았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밀알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난번 직원이 역을 헤매는 치매노인을 휠체어로 모셔 목적지까지 안내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수서역에서는 지난해 밀알로부터 기증받은 휠체어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보는 독자들에게, 혹은 수서역을 찾는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눔을 실천하는 후원자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코레일 분당선 역시 따뜻한 나눔문화가 확산되는데 적극적으로 일조할 것입니다. 또한 코레일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분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영복 죽전관리역장과의 인터뷰

코레일 죽전관리역은 서현역부터 매교역까지 총 17개역을 관할하고 있는 역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우리재단과 함께 MOU를 체결하고 제3세계 빈곤아동들에게 태양광랜턴을 보내는 '라이팅칠드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밀알복지재단과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마음만 있다면 실천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강영복 죽전관리역장을 만나 나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행복한 세상 만들기" 공유가치경영 업무협약식

코레일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열차는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역장으로서 열차운용에 따른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점검하고, 승객들의 작은 불편도 해소함으로써 편리한 열차운용이 되도록 힘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사회공헌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나요?

매서운 바람에 부는데도 불구하고 죽전역 광장에서 캠페인 활동을 펼치던 밀알복지재단 직원이 기억에 납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달라진 직원들의 모습, 혹은 문화가 있나요?

그동안 나눔은 물질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밀알복지재단과 함께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역사 내 유휴공간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나눌 수 있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좁게만 생각했던 나눔의 폭을 넓혀 생각하게 된 것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교통약자 배려 등 철도가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가고, 코레일의 슬로건인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일환으로 '장애우와 함께 희망나누기' 열차여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밀알복지재단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며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밀알**

“사랑해서, 줄 수 밖에 없어서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고 싶어요.”

후원자 김혜성씨와 자녀 손유현양과의 인터뷰

글, 사진 홍보팀 오슬길

후원하고 있는 아동은 지구 반대편 저 먼 곳에 있고, 목소리를 들을 수도, 얼굴을 볼 수도 없다. 그저 아이의 소식을 받을 수 있는 건 일 년에 몇 차례 받는 아동의 피드백. 그 때를 제외하고는, 통장에 찍힌 자동이체 금액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닫곤 한다. “후원만 하지 사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오늘 인터뷰를 한 김혜성 후원자가 후원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고 한 이유다. “어느 순간부터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만 후원자지, 내가 무엇을 정확히 후원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의무감으로 후원하는 제가 싫었어요.”

지난해 12월, 밀알복지재단은 <밀알, 알고싶은 이야기-시에라리온편>을 진행했다. 시에라리온에서 24년동안 사업을 펼쳐 온 이순복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간 활동한 이야기와 함께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혜성 후원자는 딸의 손을 잡고 강연을 찾았다. 더 이상은 ‘수동’적인 자세로 후원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김혜성 후원자는 사회 초년생이던 시절부터 약 10여

년이 넘도록, 한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결연후원을 했던 경험이 있다. “처음 후원을 시작했을 때 결연아동에게 옷도 선물하고, 편지도 쓰면서 열심히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처음과 같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나중엔 의무감으로 후원했죠.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건 당연해’라는 생각으로요.” 김혜성 후원자는 그런 의무감만으로 후원하는 자신이 싫었다고 했다. 그래서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후원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나중에 후원을 또 하게 된다면 그뻘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었다. 최근 김혜성 후원자가 후원하고 있는 단체들의 행사나 소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돕는 나라와 아동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적극적 후원자’로 거듭난 이유다. “얼마 전 읽은 책에서 사랑하지 않아도 줄 수 있지만, 사랑하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을 봤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려면, 사랑하려는 대상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해서, 줄 수밖에 없어서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고 싶어요.”

적극적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후원자

강연을 듣기 전만 해도 두 모녀가 떠올리던 아프리카는, 딸 유현양의 표현을 빌리자면 ‘못 사는 나라’ 그 자체였다. 김혜성 후원자 역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강연을 들은 후, 시에라리온을 ‘우리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그 나라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간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온 이순복 매니저를 보며, 시에라리온도 언젠가는 우리나라처럼 변화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의자까지 들고 찾아와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느꼈죠. 반드시 시에라리온에도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연을 다녀온 뒤 후원자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김혜성 후원자의 자녀 유현양. “나중에 어른이 되면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두 모녀는 한달에 얼마 씩 돈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후원자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팔이든, 어디든 같이 가게 될 것 같아요.”

유현양에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으니 ‘좋은 사람’이라는 답변이 나온다. TV와 인터넷에 범람하는 자극적인 이미지들에 쉽게 노출된 요즘아이 답지 않은 대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유현양이 그러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던 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을 꿈꾼다는 어머니인 김혜성 후원자가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본인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후원자라고 말하는 김혜성 후원자, 하지만 자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는 김혜성 후원자는, 이미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랑하는’ 후원자다. **이영**

산하시설 소식

01 기증하면 장애인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굿월스토어 밀알구리점 오픈



지난 2월 13일(금), 구리시 교문동에 위치한 밀알스토어 밀알구리점이 문을 열었다. 이 날 진행된 개점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영순 구리시장 등을 포함한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굿월스토어 밀알구리점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밀알복지재단 손봉호 이사는 “장애인을 돕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직업재활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굿월스토어 밀알구리점은 현재 일반인 근로자 8명, 장애인 근로자 8명으로 총 1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향후 인근지역 취약계층의 고용과 기증문화 확산, 장애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기증문의 굿월스토어 밀알구리점 031-524-9891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길 62 (교문동 530-4)

02 강남구직업재활센터 근로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행복한 동행'



지난 1월 3일(토), 강남구직업재활센터 근로장애인들과 KB국민카드 신입사원이 함께 겨울나들이를 다녀왔다. 이 날 강남구직업재활센터 근로장애인들과 KB국민카드 신입사원은 한 조를 이뤄 놀이공원 체험, 포토페스티벌 등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평소 나들이 기회가 많지 않았던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공공장소 이용을 통한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번 겨울 나들이는 근로장애인들과 자원봉사자의 1:1 매칭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었으며, 근로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소통하며 공공질서와 에티켓을 배울 수 있었다.



여러분의 기증이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됩니다



기증가능한 물품 손상되거나 상태가 불량하지 않은 의류, 잡화, 생활용품, 문화용품, 건강미용, 소형가전기구 등

물품기증문의	굿월스토어	밀알송파점	02 6913 9100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26(마천동)
	굿월스토어	밀알도봉점	02 6910 9191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64-17(도봉동)
	굿월스토어	밀알전주점	063 282 919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8(경원동)
	굿월스토어	밀알구리점	031 524 9891	경기 구리시 장자호수길 62(교문동)

산하시설 소식



03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우쿨렐레 희망 오케스트라단 콘서트> 우수상 수상

2014년 5월부터 (주)대교의 지원으로 '우쿨렐레 희망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난 2월 7일(토)에 열린 <우쿨렐레 희망 오케스트라단 콘서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콩다리사바라'와 '개논' 등 그동안 우쿨렐레 연주 실력을 뽐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04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심화과정' 개최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월 13일(화)부터 '결혼이민자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심화과정'을 개최했다. 지난해 진행되었던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스피치 및 발음교정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 초까지 진행된다.

05 한우리주간보호시설, '페스트푸드점 이용하기' 프로그램 진행

1월 26일(월), 한우리주간보호시설은 사회적응훈련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내 위치한 '페스트푸드점 이용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용자들은 메뉴판을 보며 희망하는 메뉴를 선택하였으며, 주문과 결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스로 하는 과정을 통해 이용자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06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KBS1TV <사랑의 가족> 방영

2월 28일(토), KBS1TV <사랑의 가족>에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이 방영되었다. 이번 방송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선한 일타인 굿윌스토어의 기증품 상품화 작업과 굿윌스토어 매장이 소개되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시각 장애인 앵커 이창훈씨와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의 손만석 대표가 인터뷰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

07 대청종합사회복지관, '나눔이웃 만두 빚기' 행사 진행

2월 12일(목),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취약계층 대상자들과 함께 '실맛이 나눔이웃 희망 나눔 만두 빚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나눔이웃 반장 15명과 취약계층 대상자 10명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나눔의 시간이 되었다.

08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3D 교통안전교육' 실시

1월 22일(목),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교통과 및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와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노인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D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안전교육 체험 버스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제공하였다.

09 도봉실버센터, '미래예술공연팀' 문화공연 진행

1월 16일(금), 도봉실버센터에서 지역 내 문화동아리인 '미래예술공연팀'의 문화공연이 진행되었다. 공연을 관람한 어르신들은 문화공연을 통해 음악으로 소통하며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10 목련어린이집, '초등학교 적응 프로그램' 진행

1월 19일(월)~ 23일(금), 목련어린이집은 초등학교 입학 을 앞두고 있는 만 5세 학급 유아 22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역사회 내 위치한 초등학교 교실에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아동들은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사전에 경험해볼으로써 두려움을 해소하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11 밀알주간·단기보호센터, 2015년 1차 구강검진 실시

밀알주간·단기보호센터에서는 이용자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2월 5일(목)부터 매 주 4회에 걸쳐 강남구보건소 진료인력과의 구강검진을 실시했다.



12 밀알학교, 2014학년도 밀알학교 졸업식

2월 13일(금), 밀알학교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유치원 2명, 초등학교 14명, 중학교 15명, 고등학교 19명, 전공과 9명 등 총 58명 학생들이 졸업했다. 졸업생들은 참석하신 내빈과 학부모, 재학생들의 축하를 받으며 지난 학교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약했다.

13 부암어린이집 '가장 형님반이 졸업여행을 다녀왔어요!'

1월 8일(목)~9일(금), 만5세 유아들로 구성된 친리반 아이들이 1박 2일로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웅진플레이도시에서 진행된 졸업여행에서 아이들은 눈썰매, 스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저녁에는 원으로 돌아가 선생님 및 친구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냈다. 졸업을 앞두고 오랫동안 간직해 오던 추억을 만든 시간이었다.

14 서초구립중앙노인복지관, '아름다운 가족 맷기 프로그램' 진행

2월 12일(목), 서초구립중앙노인복지관은 삼성물산 기술개발팀과 함께 '아름다운 가족 맷기 프로그램'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어르신 1명당 자원봉사자 3명이 매칭되었으며, 각 가족의 구성원 역할을 하게 될 봉사자들은 올해 11월까지 매월 담당 어르신 댁에 방문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들에게 말동무, 청소 및 빨래, 정보기, 집 정리 등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나눔 예정이다.

15 성남시장장애인복합사업장, 근로장애인 대상 이·미용 서비스 실시

2월 10일(화), 성남시장장애인복합사업장에서는 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이·미용 서비스는 근로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직장인으로서 삶의 활력소 증진의 도움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16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삼성SDI 여수사업장과 함께한 '사랑의 이불 나눔'

1월 12일(월),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은 삼성SDI 여수사업장과 함께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삼성SDI 임직원들은 소외계층 100세대를 찾아 이불을 직접 전달했으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스한 나눔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17 안산시장애인복지관 (현대자동차 2015년 함께움직이는 세상 공모사업 2년 연속 공모사업 사업선정)

1월 15일(목),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은 현대자동차에서 진행되는 '2015 함께 움직이는 세상'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지원금을 전달받았다. 지난해에는 행복드림키를 지원받은 바 있으며, 금년에는 '함걸을 더 가까이 - 두 번째 이야기'라는 지역사회 및 가족 대상 방문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전달받았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은 2014년도 사업성과에 따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18 중림어린이집, 추억이 가득한 졸업여행

1월 20일(화), 중림어린이집은 통합교육아동 및 7세 반 아동들과 함께 경기도 양평 외갓집 체험마을로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아동들은 떡메치기, 썰매타기, 장작타기 등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다.

19 청마을어린이집, 2015년 신입 및 재원 원아 오리엔테이션 진행

2월 7일(토), 신입 및 재원 원아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학부모들에게 청마을어린이집 운영 및 각 반별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학부모들에게는 청마을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신입원아들에게는 적응을 돕는 시간이 되었다.

20 청밀, 2015년 중구 어린이집 식자재 공동구매업체로 최종 선정

1월 28일(수), 청밀이 2015년 중구 어린이집 식자재 공동구매업체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협약을 진행하였다. 청밀은 2년 연속 선정된 은평구 어린이집에 이어 중구 어린이집에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어린이집 급식의 질을 높일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날’ 기념 회원대상
장애인식개선 세미나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특별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장애인의 목소리로 듣는 삶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장애인들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간 우리를 ‘우리’로 만들지 못했던 모든 장벽들은 허물어지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우리’가 되는 사회통합이 시작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로 하나되는 통합의 현장에 회원님을 초대합니다.

내용 : 유연장애인권리협약 강의 및 장애인에게 듣는 생애주기별 과제와 삶

신청자격 : 만 15세 이상 (동반자 참석가능)

일시 : 4월 17일(금) 오후 7시

장소 : 밀알복지재단 3층 교육실

문의 : 회원관리부 이선영 간사
(070-7462-9077)

신청방법

방법 하나 회원전화번호(1600-0966)으로 전화하여 신청하기

방법 둘 QR코드로 접속하여 모바일로 신청하기

신청마감 : 2015년 4월 6일(월)

※ 선착순 마감되며, 접수되신 분들께 4월 8일(수) 개별적으로 연락됩니다.



‘2015 봄(Seeing&Spring)’ 전시회



봄(Seeing&Spring)이란 발달 장애인이 세상을 ‘본다’(Seeing)는 의미와 미술가로 성장해 독립적인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Spring)이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에 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1차 전시 4월 8일(수) ~ 4월 14일(화) / 대전MBC M갤러리

2차 전시 4월 15일(수) ~ 4월 30일(목) / 송파도서관 다솜갤러리

문의 밀알복지재단 070-7462-9065

회원 모니터링 ‘어울림’ 2기 모집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어울림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갈 회원님을 찾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은 회원 모니터링단 ‘어울림’을 통해 진행중인 사업 및 운영내용을 공유하고,

회원님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자 함께하는 회원 모니터링단 ‘어울림’, 회원님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원자격

- 밀알복지재단에 3개월 이상 후원한 만 20세 이상의 정기후원회원
- NGO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싶은 회원
- 밀알복지재단의 회원을 대표하여 의견을 제안할 회원
-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정기모임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회원

활동내용

- 정기모임
- 국내사업기관 라운딩
- 회원서비스 모니터링

활동기간

- 오리엔테이션 : 2015년 4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 정기모임 : 2015년 5월 ~ 10월 (총 5회, 매월 둘째주 금요일 저녁 7시)
-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방고개로 1길 34, 밀알복지재단 3층 교육실

활동혜택

- 모니터링단 활동증명서, 봉사활동증명서
- 회원행사 우선 참여기회 제공

신청방법

방법 하나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지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이메일(membership@miral.org)로 신청

방법 둘 QR코드로 접속하여 모바일로 신청

문의

회원관리부 윤수현 대리
070-7462-9073



선발절차

회원모니터링단 ‘어울림’ 2기

신청접수 : 2015. 3. 16.(월) ~ 4. 10.(금)

전화면접 : 2015. 4. 13.(월) ~ 4. 16.(목)

최종발표 : 2015. 4. 17.(금)

어울림 1기 후기



이창민 회원 모니터링 어울림 활동을 통해서 내가 낸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 좋았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후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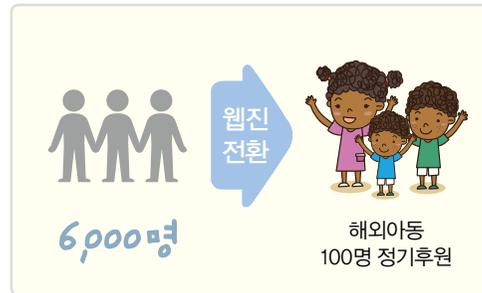
정해정 회원 모임에 한 달에 한번 꾸준히 참석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내가 후원하고 있는 곳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었던 기회였기에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소식지 구독 전환 캠페인

소식지 구독방법 전환하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세요

2015년 3월부터 우편으로 받아보셨던
밀알복지재단 인쇄물 소식지 '밀알(Miral)'을 웹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인쇄물 소식지 '밀알(Miral)' 구독방법 변경하시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해주세요.

인쇄물 소식지의 웹진 구독 전환,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웹진 구독 전환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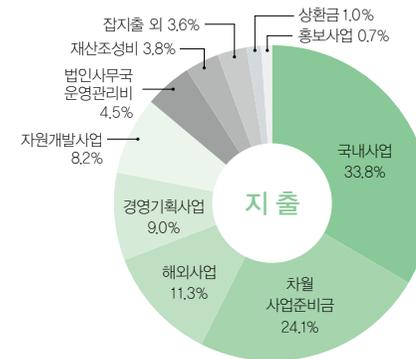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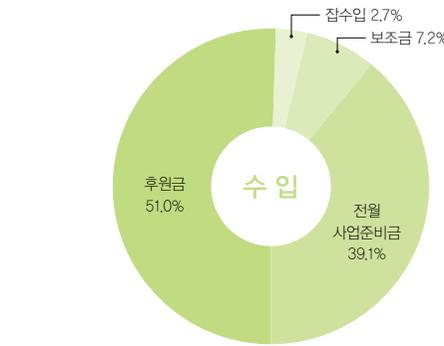
방법 하나,
회원전화번호(1600-0966)로
변경 신청하기



방법 둘,
QR코드로 접속하여 직접 변경 신청하기
(왼쪽의 QR코드로 신청해 주세요)

2015년 1월~2월

여러분의 후원금,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수입 단위: 원

구분	금액	구성비
수입총계	4,095,074,393	100.0%
보조금	295,934,985	7.2%
후원금	2,088,658,283	51.0%
잡수입	110,697,987	2.7%
전월 사업준비금	1,599,783,138	39.1%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성비
지출총계	4,095,074,393	100.0%
법인 사무국 운영 관리비	4,095,074,393	100.0%
국내사업	1,383,267,842	33.8%
해외사업	461,390,573	11.3%
자원 개발사업	337,515,334	8.2%
홍보사업	27,705,972	0.7%
경영기획사업	368,033,263	9.0%
재산조성비	156,926,380	3.8%
상환금	42,487,466	1.0%
잡지출 외	145,951,353	3.6%
차월 사업준비금	986,644,075	24.1%

생명경이 생명경을 더합니다

당신을 살게 하는 소중한 생명,
그 생명에 힘을 더합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는 19개 생명보험회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국내 사업장]

| 법인 사무국 | 02-3411-4664
경 남 지 부 1600-0966
전 남 지 부 1600-0966
전 북 지 부 1600-0966
부 산 지 부 051-853-4665

| 장애인복지사업 |

강남구직업재활센터 02-2184-8700
굿월스토어 밀알송파점 02-6913-9100
굿월스토어 밀알도봉점 02-6910-9191
굿월스토어 밀알전주점 063-282-9192
굿월스토어 밀알구리점 031-524-9891
밀알그린보호작업장 02-3411-8300
밀알그림출 동행의 집 055-753-1456
밀알그림출 나눔의 집 02-3401-1084
밀알그림출 섬김의 집 02-449-3478
밀알 단 기 보 호 센터 02-3414-0314
밀알주간보호센터 02-3414-0314
밀알 베이커리 02-2184-8702
밀알 보호 작업장 02-2184-8740
밀알장애인복지지원센터 02-3411-7942
우리플러스작업장 02-2184-8750
밀알 학 교 02-3412-1133
성남시장애인복지사업장 031-777-9041

안산밀알보호작업장 031-402-2484
안 산 밀 알 센터 031-401-0902
안산시장애인복지관 031-403-0078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031-418-9863
안산아름드리그림출 031-414-3171
옥 수 그 림 출 031-705-3398
한우리주간보호센터 02-2184-8761
해마유주간보호센터 02-3412-7747

| 노인복지사업 |

도봉노인종합복지관 02-993-9900
도봉데이케어센터 02-990-6670
도봉시니어클럽 02-3492-3009
도봉실버센터 02-955-6080
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02-955-6080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02-3494-6060
목련데이케어센터 02-3412-2226
방학동밀알데이케어센터 02-955-6090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02-3474-6080
창동밀알데이케어센터 02-995-7890

| 지역복지사업 |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02-3412-2222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3414-3346
대청종합사회복지관 02-459-6332
쌍봉종합사회복지관 061-681-7179

쌍봉지역아동센터 061-681-7279
| 아동보육사업 |
면얼어린이집 02-495-4604
목련어린이집 02-3412-1999
부암어린이집 02-396-6226
여천제일어린이집 061-681-7170
중림어린이집 02-364-7534
청마을어린이집 02-459-6335

| 문화, 일자리사업 |

밀알아트센터 02-3411-4661
사회적기업 청밀 02-459-8860

[해외 사업장]

기니비사우 +245-574-6516
남아프리카공화국 +27-79-527-9117
네 팔 +977-1-431-5485
라이베리아 +231-886-668097
레바논 +961-7049-1615
마다가스카르 +261-2022-44496
말라위 +265-992-129-931
방글라데시 +880-171-510-7842
베트남 +84-903-391-568
시에라리온 +232-76-606074
아티티 +1-917-648-1199

에티오피아 +251-911-760-422
우간다 +256-776-771-324
우크라이나 +38-0974-338-961
이스라엘 +972-52-547-1422
중국 +86-133-448-7401
케냐 +254-732-625-987
탄자니아 +255-754-344-495
코트디부아르 +225-0705-8783
태국 +66-86-191-6122
필리핀 +63-922-739-7017
캄보디아 +855-12-783-193

후원전용계좌

- 하나은행
810-213140-01605
- 외환은행
630-009630-877
-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회원전용번호
1600-0966

www.miral.org
밀알복지재단